

접붙여진 생명

9/2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요 15:1,4-5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3:15-16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렘 23:5

5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을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현명하게 행하며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렘 33:15

15 그날 그대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이 나게 하리니, 그가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할 것이다.

주님과 합하는’(고전 6:17)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요 3:15-16). 이 연결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연결된 것으로 설명된다(15:4-5). ...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전 6:17 각주 1)

‘한 영’(고전 6:17)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영과 하나이다(롬 8:16). 이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실재화이시고, 주님은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고전 15:45, 고후 3:17),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딤후 4:22).(고전 6:17 각주 2)

가지들(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있는 이 참포도나무(아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요 15:1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의 계시에 따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궁극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다. 이러한 관계의 본질은 사람의 관념을 뛰어넘는다.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한 생명이 된다.

자연계에 이것을 보여 주는 그림이 있다. ... 주 예수님은 거듭거듭 일반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 영적인 것들을 보여 주셨다.

식물의 왕국에서는 빈약한 가지를 원래의 나무에서 잘라 내어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접붙임이라고 알려진 이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로마서 11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17, 24 절). 우리는 열등하고 작은 야생올리브나무 가지들이었지만, 우월한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 이제는 그 뿌리에서 오는 풍성한 영양분을 누리고 있다.

접붙여지는 가지는 그 가지가 접붙여지는 나무와 똑같지는 않다. 만일 그것들이 똑같다면 접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나무에 문제 있는 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참된 본질이다. 참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은 우월한 나무이시다. 어느 날 여러분은 믿음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다. 이러한 접붙임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하나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생활은 이제 하나로 접붙여진 이 두 생명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이 이 참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를 누릴 때, 여러분의 가련한 생명은 정복되고 여러분은 번성하기 시작한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 넘어서 생명 안에서의 연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접붙여졌다는 관념은 사람의 생각에는 낯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러

나아오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는 생명이 두 생명이 하나로 접붙여진 생명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개했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신성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졌다. 이러한 접붙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란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공급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권, 생명 메시지 2, 58장, 421-423, 43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권, 생명 메시지 2, 58-59장

9/3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11:17-18, 19-24

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18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20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꺾어졌고, 그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2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라질 것입니다.

23 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24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6:14

14 그러나 나에게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종류의 생명이 다른 종류의 생명에 접붙여지려면 그 두 생명은 반드시 매우 유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무 가지를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열등한 복숭아나무 가지를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두 나무의 생명은 서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분배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 ...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결합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신성한 생명을 닮았다. 그러므로 이 두 생명은 서로 쉽게 접붙여질 수 있고 그런 다음 함께 유기적으로 자랄 수 있다.

열등한 나무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풍성하고 달콤한 나무의 생명과 함께 하나의 단위로 자란다. ... 이것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진 생명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63, 211-212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접붙임에는 주된 두 방면 즉 잘리는 것과, 연결되는 것 또는 결합되는 것이 있다. 잘리는 것이 없다면 어떤 접붙임도 있을 수 없다. 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여지려면 반드시 먼저 잘려야 한다. 잘리는 일이 생긴 후, 결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연합은 유기적이다. 그러므로 접붙임 안에서 우리는 잘리고, 결합되며,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잘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 생명은 잘렸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더욱 자라기 위해 그분과 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지만, 반면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보배로움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어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잘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합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만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과 관련된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잘렸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었다. 이 잘라짐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6 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세상, 특별히 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13-14 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잘리시므로써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이 우리의 역사(歷史)가 되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렸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종교와 율법과 그 규례들에서 잘렸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역시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했음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졌는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서 이미 잘렸으므로, 우리는 유대교와 가톨릭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의 역사의 한 방면에는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잘리게 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역사의 다른 방면에는 우리를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 부활이 포함된다. 이 연결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상을 보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 이 유기적인 연결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생활은 바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옛 근원에서 잘렸고 살아 계신 분께 연결되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92-9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9/4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6:5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1:14, 29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10:10b

10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8:11, 16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벤전 3:18b

18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안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육체가 되셨다(요 1:14, 29).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요 10:10 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과 연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된다(고전 6:17). 우리 영은 살아났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고전 15:45 각주 1)

가지 하나를 접붙이려 한다면 그 가지뿐 아니라 그것이 접붙여질 나무도 잘려야 하고 ... 그런 다음 함께 접붙여져야 한다. ... 두 상처가 서로 맞닿을 때, 접붙임이 일어나고 성장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언제 잘리셨는가? 십자가에서였다. 주 예수님의 상처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찢렸고 피가 흘러나왔다.

죄인은 언제 잘렸는가? 죄인 또한 십자가에서 잘렸다. 죄인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 잘림을 체험한다.

죄인의 상처가 주 예수님의 상처를 접촉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 접붙여진다. 주님은 새롭게 접붙여진 이 가지 안에서 사시고 자라시면서 그 가지에 공급하기 시작하신다.

로마서 6 장 5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린 그 자리에서 주님 안으로 접붙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은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접붙여지고 그런 다음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고, 그와 동시에 그분과 함께 자란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8 장, 428-4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6 장 5 절에서 접붙여지고 함께 자라는 것의 첫 번째 방면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방면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을 가리킨다.

접붙임의 시작은 주님의 죽음과 관계된다. 그분은 참포도나무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철저히 잘리셨다. 이제 그분의 잘린 상처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은 우리가 체험하는 잘림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는 때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8 장, 429-430 쪽)

접붙이는 사람은 성공적인 접붙임을 위해 접붙여지는 가지와 나무 두 부분이 모두 잘리고 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 먼저 접붙여질 가지가 잘려야 하고, 다음으로 가지가 접붙여질 나무 또한 잘려야 한다. 양쪽 모두 잘릴 때에만 접붙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편에서는, 다윗의 가지이신 그분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비록 육체 안에서 죽으셨지만, 그 영 안에서 부활하셨다(벧전 3:18 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그러한 영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접붙여질 준비가 되었다. 우리 편에서는, 죄인들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넣어 주신다. 이 생명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열쇠를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 안으로 가져오신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진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 장, 75-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 장

9/5 목요일

아침의 누림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롬 8:4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빌 3:6

6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은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 갈라디아서 2 장 19 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 우리가 실지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90 쪽)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갈 2:20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더 이상 내가 ... 아니라’라는 말은 교환된 생명, 즉 우리는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는’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롬 6:6) 옛 ‘나’가 있고, 또 새 ‘나’가 있다. 바울은 옛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라고 말했고, 새 ‘나’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이라고 말했다. 끝난 옛 ‘나’에는 신성이 없었지만, 새 ‘나’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더해지셨다. 옛 ‘나’가 부활하여 옛 ‘나’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셨을 때, 새 ‘나’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바울은 끝났지만, 또 한 면으로 부활한 바울, 곧 그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거듭난 바울은 여전히 살고 있었다. 더욱이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분께서 바로 바울 안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이 둘, 곧 그리스도와 바울에게는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이 있었다. (갈 2:20 각주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5:45 하). 이 요점은 갈라디아서의 다음 장들에서 충분히 발전되는데, 거기에서 그 영은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제시되며 강조되었다(비교 롬 1:17).

타고난 사람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빌 3:6).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다(1:20-21).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것보다 율법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활에서 중심과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율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감호 아래 있게 하시어(갈 3:23),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24 절).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그분을 살아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의 기능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에서 율법을 대치하셔야 한다. (갈 2:20 각주 3)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다. ... 그것은 접붙여진 생명, 곧 두 편이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자라는 생명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3, 211 쪽)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진 후에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 살지 말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나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의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곧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영에 의해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먼저 우리는 그분과 연결된다. 이것이 연결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연합이다.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합병체가 된다. 이 합병체가 곧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위대하고도 우주적인 합병체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 장, 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6

9/6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6:3-5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 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5:12, 21

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올 때 신성한 생명은 내용이 되고 사람의 생명은 그릇과 표현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교환 혹은 맞바꿈이 없다. ... 신성한 공기 곧 하늘에 속한 프뉴마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과 교환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 그것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와 연합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생명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되는 문제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3, 207-20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생명은 부활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 주님은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기능을 높이 올리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풍성하게 하시고 강화하시며 심지어 적시신다. 이 새로운 생명은 바로 두 생명이 하나로 접붙여진 생명이다. 이러한 연결 안에 승리와

생명과 빛과 능력과 그 외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교환이나 여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접붙여짐에 의한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8 장, 430 쪽)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물에 속한 타고난 생명이 되었다.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는 두 가지 주된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죄이고, 두 번째 요소는 죽음이다(비교 롬 5-7 장). ...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롬 5:12). 이렇게 해서 죄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했고(5:21 상, 6:12),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위에 왕 노릇을 했다(5:17 상, 14).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고, 이러한 죽음을 통해 그분은 아담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위대한 종결을 이루셨다(롬 6:6). ...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린다. 이렇게 하여 죄와 죽음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롬 5:21).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아담과 함께 제해지고, 완전히 파괴되며, 소멸되어야 한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이 제해졌다(롬 6:3-4 상).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는 것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롬 6:4 하, 5 하, 8 하, 갈 2:20 하). 로마서 6 장 8 절은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는 접붙임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졌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란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 더럽혀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며,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살아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이 부활 안에서 복원된다. 더욱이 그 기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적셔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옛 창조물 즉 옛사람의 영역에 속한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더욱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지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양육받고 새로워져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 장, 68-7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3-64

9/7 토요일

아침의 누림**롬 11:17, 24**

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빌 3:11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8:29-30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칙에 따르면, 열등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 열등한 생명에 영향을 준다. 사실상 풍성한 생명은 열등한 생명의 모든 결점을 삼켜 버릴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 열등한 생명을 변화시킬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점을 삼켜 버리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제해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의 결점을 삼켜 버리시는 동시에 우리의 인성을 높이 올리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덕을 높이 올리신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환의 문제가 아니라 접붙임의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란다. 더 낮은 생명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이 더 높은 생명 곧 신성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지며, 더 높은 생명은 더 낮은 생명의 결함을 삼키고 ... 더 낮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높이 올리며 변화시킨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고 우리 체험에 따라,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접붙여진 생명이 있음을 본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3, 212, 216-21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러한 접붙여진 생명은 ... 교환된 생명이 아니다. 열등한 가지는 그 가지가 접붙여진 나무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빈약한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가지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생명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그 가지의 생명이 높이 올려지고 변화된다.

접붙임의 결과는 무엇인가? 더 나은 나무의 기름진 것이 접붙여진 가지에 공급될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지의 본래 기능이 복원되고 강화된다. 그 열매는 여전히 접붙여지기 전의 열매이지만, 문제가 되는 요인들이 정복되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가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셨다. 그분의 기름진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의 모든 열등한 요소를 제거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기능을 높이 올리시어 강화되고 풍성하게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는 적셔지고 변화되며, 놀라운 열매가 산출된다.

로마서는 교환된 생명이나 여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비교 6:11). 이 접붙여진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어떤 부족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는 보배로운 나무 안으로 접붙여져 있다면 그분의 탁월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8 장, 425-426 쪽)

신성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생명의 결함과 부족을 삼킬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육체 됨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통과하여 과정을 거쳤음을 기억하라. 지금 그분의 생명은 이 모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항생제를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마치 항생제가 병원균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죽이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끝낸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사람의 생명을 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기를 더 선호할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세균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그것이 신성한 생명으로 대치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방식은 아니다. 그분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함과 부족과 '세균들'을 삼켜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릴수록 더욱 우리는 영적인 항생제 안에 있는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분의 생명 안에는 영양 공급의 요소뿐 아니라 죽이는 요소도 함께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낙담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기질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죽일 것이며,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기질을 제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높이 올려 사용하실 것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3, 214-2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8년, 1 권,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한 메시지 모음,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4-65

찬송: 482 (英) 주와 함께 못 박힌 나 (中:365)

1 주와 함께 못 박힌- 나 십자가-로 해방돼
주와 함께 부활했네 주 내 안-에 사시네

(후렴)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참- 달콤하고 달콤해
세상 자아 죄에 죽고 나- 주와 함-께 산다네.

2 영원부터 감천 비-밀 믿음-로 알게 돼
내주하는 그리스도 나의 영-광의 소망
48

3 한 알의 밀 죽을 때-에 많은 밀-알 거두네
접붙일 때 바뀌어져 쓴 열매-가 달게 돼

4 우리 거룩함이 아-닌 주의 거-룩함일세
주님 우릴 비우시고 주로 채워 주소서

5 우리의 힘 끝날 때-에 고통 질-병 치료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주-의 생명뿐

6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좌 이-른 주같이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죽-음뿐일세

9/8 주일

아침의 누림

롬 11:16-17, 22-24, 30-36

16 드러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2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라질 것입니다.

23 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30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31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33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 있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as the One Sacrifice for the Doing of God's Will

Scripture: Heb. 9:14-10:18